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21장(다 찬양하여라)	다 갈 이
※ 교 독 문	.....106(감사절(2))	다 갈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 446(주 음성 외에는)	다 갈 이
예배기도	..... 1부 박세일집사 2부 박기환집사	찬 양 대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축 복 송”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전도초청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시편 122:1-9	윤승호집사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 최세열목사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588장(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갈 이
봉 헌	..... (베드로회)	다 갈 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께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허 웅집사	본 문 / 요한복음17:21	기 도 / 말은이	본 문 / 갈라디아5:22,23	에스겔 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b>금요기도회</b>			
WCC란 무엇인가?	축 도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성령의 열매-오래참음”	오후9시 / 소예배실	함심기도, 중보기도
		주기도문 / 다같이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기 도	1부	김애경집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12월 김기희 김애자 김근중 이강영		2부	김기희권사
식당봉사	금주 사라회	다음주 바나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말 은 이	
헌신찬양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말 은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 시편 122:1-9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생활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이란 우리의 인생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삶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 순례자들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1절).**

순례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권면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왔는데, 그 일이 너무 기뻐 바지춤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평생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성전을 지을 준비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화려한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시27:4, 시84:2, 시84:10).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2. 순례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4,5절).**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례(율법)대로 성전에 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시50:23, 골2:7).

그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해결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8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봉헌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이를 확신하게 됩니다.

힐링이 유행이 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힐링(치유)의 장소가 곧 여호와의 집이고, 그 방법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3. 순례자는 평안과 형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6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무엇보다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자신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성안에 평안이,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7절) 하였고, ‘네 가운데 평안이 있다’(8절)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9)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감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 / 11. 헌 신(2013.11.10)  
제2과 중의 자리는(누가복음 17장 5-10절)

**말씀 살피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아닌 믿음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작아도 새가 깃들만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헌신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합니다.

1. 예수님은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6절)
2.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할 말은 무엇입니까?(10절)

**말 씬**

헌신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명력을 가졌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믿음은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헌신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제자들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헌신자는 칭찬 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좋은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좋은 칭찬이나 감사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에 대해 총처럼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누구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헌신자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지도자는 충성하되 스스로 자랑하거나 누구에게 칭찬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2.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3. 나는 칭찬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는 편입니까?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는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베드로회가 함께 했습니다.
2. 다음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 찬양예배는 각부서와 신도회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수감사주일에는 사도행전 전도초청예배로 드립니다. 전도초청예배 당일에 초청하실 분들은 전도사역팀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 후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이겠습니다.
5. 교우소식 :  
이사: 김미연집사님께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화꿈에그린파트 103동 1608호로 이사하셨습니다.

###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양석임 김기수 신혜영 박정일 박지영 박홍만 정정희 박상귀 공영순 김동기 김보경 박희순 서영자 김태라
- 감사헌금 : 양석임 함경숙 강항구 류종란 이영란 이종춘 심문자 김홍영 김종호 박명애 김지환 김동현 이문순 이경희 무 명 (일천번제) 김동현 (생 일) 무 명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박상귀 공영순 강동균 김현아 심승기 에스더 박희순 사라희
- 비전씨앗 : 노순영 배영인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금자	3	9,000	17	김귀례	7	강은순	이영선	교 회				
2	정정희	김한순	이경희	6	11,000		심문자	8	김순남	오복실	교 회				
3	이종호	함경숙	교 회					9	김인순	이영란	교 회				
4	김기희	최경선	교 회	4	14,000		최경선	10	장영분	박현순	선우명환	3	13,000	100	
5	이문순	원해경	교 회	3	16,000		한은미	계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 오늘의 설교예화

#### 맥스웰의 기쁨

존 맥스웰(John Maxwell)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였던 맥스웰은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틈만 나면 설거지가 싫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주저 없이 그녀 옆에서 설거지를 하였지만 그 설거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설거지였습니다. 그에게 여자는 기쁨의 대상이었기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기쁨이 된 것입니다.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 일상생활속에서의 감사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에 가려면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했고, 험한 지역도 지나야 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겪은 일을 들어보게! 내 말이 길을 오다가 갑자기 뭘가에 놀라 뛰는 바람에 내가 땅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지 무언가. 다행히 아무 데도 다친 곳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다리라도 부러졌더라면 어쩔뻔 했나?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다네. 내가 탄 말은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태우고 왔으니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여태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사람과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5 2013.11.10.

#### 11월의 행사

1. 제직회 - 11월 3일
2. 해든솔 선교활동 - 11월 9일 오전8시30분.
3. 평신도참여예배 - 11월 10일 / 베드로회
4. 추수감사주일 - 11월 17일  
\* 이 날은 전도초청예배로 드립니다.
5. 추수감사절찬양예배 - 신도회별 찬양
6. 예, 결산위원회 - 11월26일 / 제직회에서 결정
7. 각부감사 - 11월 30일 오전10시30분부터  
\*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 : 제직회에서 결정.
8. 경기노회 제176회 제1차 임시노회  
- 11월 5일(화) 오후2시 이천새터교회

#### WCC란 무엇인가?

##### WCC의 제10차 부산회의의 의미

- \* WCC부산회의  
- 일정 : 2013년 10월 30일- 11월 8일  
- 장소 : 부산 백스코 회의장
- \* WCC에 대한 안내와 오해들에 대한 대담  
- 11월 3일 찬양예배
- \* 경기노회참여일정 - 11월 7-8일
- \* WCC는 전 세계 140개국에 산재한 우수한 정교회와 개신교회 349개 교단과 그 속에 속한 5억 6천만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의 연합기구이며 한국에서는 정통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정교회 대교구가 회원교회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연합기구이다.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